

6·13 지방선거 누가 뭐나 - (9) 순천시

민주-평화-바른미래 3당 경쟁구도 '형성'



조충훈 허석 이창용 양효석 윤병철

조충훈·허석 당내 경선서 뜨거운 '리턴매치' 예고

이창용·양효석 출사표... 민주, 10년만 고지탈환 주목

순천시장은 광주·전남에서는 보기 드물게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등 3당 경쟁구도가 짜였다.

치열한 당내 경선을 예고하고 있는 민주당이 10여년만에 순천에 깃발을 꽂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민주당에서는 조충훈 현 시장에 맞서 허석 한국철화연구소 소장이 도전장을 던졌다.

민선 3기에 이어 5·6기 시정을 책임진 조충훈 시장은 이번이 사실상 4선 도전이다. 재임기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국내 첫 국가정원으로 지정받는 등 순천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최근 3선 도전을 공식화하면서 "민고 말기는 지방정부, 성공의 보증수표 순천을 만들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며 "제4차 산업혁명 박람회 개최 등 대한민국 생태와 정원의 대표도시 순천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순천 잡월드, 마그네슘 클러스터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정원·웹툰산업 등을 중심으로 4년간 모두 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약속했다.

2016년 순천지역위원장 직무대행으로 민주당에 복당했고 현역 프리미엄에 인지도와 조직력이 강점이지만, 지역민들의 '피로감'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관건이다. 최근 민주당 예비후보자 검증에서도 뇌물수수 전력도 마에에 올랐지만, 최고위원회에서 구제되는 등 흥역을 치렀다.

4년 전 민주당 후보로 나서 당시 무소속 조 시장에 7,000여표 차로 석패한

허석 소장은 당내경선에서 설욕을 노리고 있다.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문재인 대통령 후보 전남공동선대위원장 등을 지냈고, 시민운동 등을 통해 오랜 기간 지역민들과 함께 호흡해 왔다.

"완전히 새로운 순천을 만들겠다"며 출사표를 던진 그는 시민의 소득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경제성장도 시 순천을 위해 Smart city(지역특성 테마형 특화도시), Start up city(기술창업 벤처기업의 클러스터 도시), Searching city(찾아가는 도시), Silver industry city(실버산업 도시) 등 4S 도시 추진계획을 내놨다.

허 소장은 "지난 총선 때 새누리당이 정권 후보를 도왔다 해 해당행위 의혹을 받고 있고, 뇌물수수 3년여를 복역한, 그래서 적폐청산 대상인 조충훈 순천시장을 4년을 더 맡기겠느냐"면서 "이제는 바꾸자"는 위대한 순천시민의 외침을 믿는다"며 경선승리를 자신했다.

민주평화당 후보로는 이창용 순천시 의원이 나섰다. 순천시청에서 6개 국장을 역임한 공직자 출신으로, 2010년 순천시의회에 진출해 재선 부의장을 지냈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특위위원장, 지역경제 활성화지원 특위위원장 등 행정과 의정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강점이다.

그는 "오랜 공직생활에서 쌓은 실무 능력과 8년의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순천 100년 곁간을 마련하겠다"며 "고소득형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농업경

쟁력 향상, 각종 축제와 행사 정리, 아이 많이 낳는 도시, 노인들이 존중받는 도시, 교육과 문화 예술·스포츠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에선 양효석 회계사가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지역민들과 접촉면을 늘리고 있다. 회계사회 광주지회 부회장 및 순천광양회계사회 회장, 순천세무서 국제심사위원, 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등을 지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조 시장의 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는 "순천시민과 함께 미래 100년에 대한 비전을 만들어 가겠다"며 바다민심을 다지고 있다.

무소속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윤병철 예비후보가 뛰고 있다.

3선 순천시의회를 지낸 윤 예비후보는 지난 1월 시장 출마선언 뒤 민주당 경선준비 중 전화 착신 여론조작 의혹이 불거졌고, 지난 11일 탈당과 무소속 출마로 노선을 바꿨다.

순천시청 선거는 민주당이 지난 10여년간의 패배를 딛고 깃발을 꽂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당시 새누리당 이정현(현 무소속)의원에 재선 타이를 내렸고, 2012년에는 당시 통합진보당 소속이던 김선동 의원에 재선을 내줬었다.

지방선거역시 마찬가지로 2010년 5대 때는 무소속 노관규 후보가 과반 이상을 득표(6만891표·50.62%)하며 당선됐고, 2014년 6대 선거에서는 현 조충훈 시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반면, 지난 대선에서는 전국 최대 득표율을 기록하는 등 문재인 대통령에게 표를 몰아줬다. /정근산 기자

민주 전남지사 3인 '운명의 3일'

오늘부터 경선...결선투표·동부 표심 등 변수 탈락 후보와 막판 '합종연횡' 이뤄질지 주목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사 후보경선이 13일부터 사흘간 일정에 돌입한다.

야권주자가 가시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막판 득표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김영록·신정훈·장만채 예비후보 중 승리가 전남지사직을 거머쥘 가능성이 높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민주당에 따르면 전남지사 경선은 13일부터 15일까지 권리당원 ARS 투표 50%와 일반여론조사 50%를 합산해 본선주자를 결정한다. 권리당원은 7만여명으로 알려졌다.

1차 경선에서 과반(50%) 득표자가 없으면 18~19일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경선의 주요 변수는 권리당원 50%+일반여론조사 50%에서 '문

재인 대통령 이름이나 직함'이 표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여부다.

또 전체 유권자의 40%에 육박하는 여·순·광·양 등 '동부권' 표심의 향배는 경선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결선투표는 가장 큰 변수로,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는 3인 경선에서 득표율 50%를 넘는 후보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 탈락한 후보와 막판 합종연횡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경선일을 하루 앞둔 주자들과 각 캠프는 비상대책회의를 갖는 등 막판 지지층 다지고 부동층 흡수를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군별 조직책임자들과 긴밀히 연락을 오가며 여론조사 응답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도록 독려하고 있고, 후보 모를 상대 후보들의 부정선거를 감시하는데도

골몰하고 있다.

김영록 예비후보는 "지금까지 오직 전남도민과 민주당만을 바라보고 경선을 준비해왔다"며 "결선투표없이 한 번으로 끝낸다는 각오로 전남도민의 행복한 삶과 전남발전만을 생각하며 계속 전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정훈 예비후보는 "경선에 참여한 후보자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렵고 힘들 때 결에서 진정으로 함께 했던 후보자는 신정훈 뿐이었다"며 "문재인 정부의 전남공약을 설계한 '문재인 핫라인'으로, 지역발전을 도민들에게 약속드린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장만채 예비후보는 "위기의 전남교육을 누구나 부러워하는 전국 1위로 만든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재정자립도 끌어 전남을 전국에서 가장 잘사는 자치단체로 만들겠다"며 "전남발전을 위해 후보자의 능력과 공약을 보고 장만채를 선택해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정근산 기자



6·13 지방선거 레이다



이용섭 "광주 5·18정신, 세계에 알린다"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12일 "광주 5·18정신을 세계에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민주·인권·평화 세계중심도시 도약 4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민주·인권·평화 중심도시 광주"는 5·18 광주정

신이 역사적으로 정당하게 평가받고 광주가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명실상부한 '세계 인권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를 위해 이 예비후보는 옛 전남도청을 원형 보존해 광주정신을 기억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 "친환경차 30만대 유치해 일자리 4만개 확보"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12일 "빛그린산단에 친환경차 30만대를 유치해 4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강 예비후보는 이날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6기에서 추진하던 완성차 30만대 규모의 친환경 자동차산업

기반 조성사업을 조기에 착수하겠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지역에 있는 대기업을 지키겠다. 빛그린산단을 노사 상생모델의 선도적 실험장으로 만들겠다"며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책임경영, 원·하청 관계개선 등 4대의제를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양향자, '센트럴파크·518m 타워' 그랜드비전 선포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12일 센트럴파크와 518m 빛의 타워를 골자로 한 그랜드비전을 선포했다. 양 예비후보는 이날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센트럴파크를 조성하고 518m 빛의 타워를 건립하면 광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잠

재적 총 관광객수는 2,000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 예비후보는 "관광객 외에도 공원조성, 타워건립에 따른 건설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파급효과가 크다"며 "청년, 중장년,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좋은 일자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기철 기자



김영록 "어린이집·유치원 등에 공기청정기 설치"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사 예비후보는 12일 친환경 급식비 지원을 확대하고 어린이집·유치원 등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내용의 '영유아 및 아동 보건·건강 공약'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순천에서 가진 전남 어린이집연합회 임원과의 간담회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기본식비에서 친환경 식

재료 지원비는 40%정도에 불과하다"며 "친환경 식재료를 최대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전남도에서 적극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물론 초등학교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등 건강교실, 청정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정훈 "신재생에너지 확대해 전기료 반값 실현"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사 예비후보는 "신재생에너지의 점진적 확대를 통해 2030년까지 전기요금 반값을 실현하겠다"며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좋은 일자리 3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신 예비후보는 12일 '카본프리(탄소제로) 2030 프로젝트' 에너지 공약을 통해 "2.26%에 그치고 있는 태양광·풍력 등 에너

지를 확대, 2030년까지 30%를 달성한 후 2030년이면 전기료 반값을 실현할 수 있다"고 약속했다.

신 예비후보는 "반값 전기료 실현은 산업생태계 활기와 인구유입 효과 등이 선순환으로 작용, 지방소멸 위기를 반전시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만채 "전라선 수서발 SRT 연내 개통"

장만채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사 예비후보는 12일 전라선 수서발 SRT 연내 개통과 전라선 익산-여수 구간 직선화 임기 내 추진을 약속했다.

여수의 경우 해양관광도시로 매년 1,3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면서 전라선 KTX 이용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방문객이 920만명에 이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장 예비후보는 "전남 동부권 지역민과 방문객들의 불편해소는 물론 전라선권 인접 시·군들이 경부선이나 호남선에 비해 운행횟수나 소요시간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근산 기자



임형진, 지역 대학교수 104명 '지지선언'

임형진 더불어민주당 남구정장 예비후보에 대해 광주지역 대학교수 104명이 지지를 선언했다.

광주지역 대학교수들은 12일 임 예비후보 사무소에서 "임 후보는 경륜·도덕성·정책·인재 풀 등 모든 면에서 남구정장 후보로서 가장 준비가 잘 돼 있다"고 지지이유를 밝혔

다. 이들은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확실하게 지지장사를 밝힌 교수들이 1차적으로 참여했다"며 "본선에선 더 범위를 확대해 대학교수·전문가 등 여론 주도층 지지를 이끌어내 남구민들이 정권교체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기철 기자



명현관, 해남군수 출마... "살아 숨쉬는 공직 조성"

명현관 전 전남도의회 의장이 12일 해남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민주평화당 후보공천이 확정된 명 전 의장은 이날 해남읍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남은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며 "인사혁신으로 공정한 인사를 통해 살아 숨

쉬는 공직풍토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군수가 되면 청렴서약을 하고, 업무 추진비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농어촌의 모든 자원을 활용, 마음놓고 농어업에 전념해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장석용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 정책공약 제시

장석용 전남도교육감 예비후보는 12일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를 주제로 5개 정책공약을 제시했다.

장 예비후보가 제시한 정책은 ▲학교시설

강급 안전점검 실시 ▲미세먼지와 유해환경 차단 ▲유전자 조작식품(GMO)없는 친환경 급식 확대 ▲생명과 관련된 안전교육 체계적 실시 ▲회복적 생활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등이다.

/황애란 기자